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20장 다같이

1.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2.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3.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4.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후 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 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사도행전 20장 28절 인도자

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설 교 “참된 목자”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명절 기간 중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3. 교회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된 목자

사도행전 20:28

리처드 백스터는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로서 청교도 혁명에 참여했고 그로 인해 무수한 고난을 받는 목회자다. 그는 열정과 솔직함과 합리성을 지닌 인물로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 외 200여 권을 저술했다. 그의 저서 『참된 목자』는 1655년 12월 4일 우스터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집회’를 열 때 설교할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병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책으로만 출판되었다. 백스터는 목회자를 새롭게 하므로 성도들이 새로워질 것을 믿었다. 1편은 목회자의 자아 성찰의 필요성, 2편은 양 떼를 돌보는 목양의 본질과 자세와 이유, 3편은 목회의 실제 적용으로서의 겸손과 교리문답 교육을 제시한다.

▶백스터는 1편에서 목회자들에게 다양한 자아 성찰 질문을 던진다. ① “당신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믿고, 그들에게 소개하는 구주를 자신이 먼저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②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가?” 목회자는 은혜의 역사가 자신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지 늘 살펴야 한다. 목회자가 먼저 천국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양들에게 천상의 감미로움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더욱 느끼게 할 수 있다. ③ “당신은 당신의 들보를 보고 있는가?” 성도들의 죄를 경고하고 질책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죄를 꾸짖기는 쉬워도 죄를 이기기는 힘들다. ④ “당신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가?” 성도들의 눈을 열어 교묘하게 침투한 유혹을 드러내고,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삶의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실천해야 한다.

▶백스터는 목회자들에게 경고를 날린다. 목회자도 천국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설교해야 한다. 목회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목회자는 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목회자는 주목받는 자리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타인의 시선이 죄를 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실족하는 것을 지켜볼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의 죄는 더 큰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가 짓는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2편에서는 목양의 본질을 다룬다. 목양은 모든 양 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한다. 형편, 성향, 관심, 문제, 직면한 죄와 유혹, 특별히 회심하지 않은 자들,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 비신자를 회개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대중 설교는 탁월한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큰 효과가 있다. 교리문답과 상담은 목회자들의 의무다. 목회자는 다양한 자질을 필요로 한다. 유순함과 겸손만이 아니라 엄격함과 온유함을 조화시켜야 한다. 특별히 목회자의 교만은 치명적이고 악한 죄다. 교만에서 시기, 분쟁, 불평이 나온다. 목양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신중하고 질서 있게, 소중한 일부터, 간단명료하게, 겸손하게, 엄격함과 관대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하고 진지하며 열정적으로, 부드러운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경건하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므로, 다른 목회자와 하나 되어, 시행해야 한다.

▶백스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기록에 이르지 못하는 신자를 꾸짖는다. 청교도들에게 칭의는 시작에 불과하고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신자가 삶의 성화를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은 그가 택함 받지 못했음을 보이는 확실한 표시다.”